

17세기 男性의 女性再現

- 김창협(金昌協)의 여성 애제문을 중심으로 -

고 연 희*

目 次

1. 여성의 죽음, 남성의 애도
2. 여성칭송의 틀
3. 여성이미지의 정형화
4. 남성적 덕목의 출입
5. 남성의 재현, 여성의 존재

1. 여성의 죽음, 남성의 애도

사람이 자식을 가짐에, 남자가 많고 여자는 적기를 원하지 않는 이가 없는 것은 인지상정이다.¹⁾

여자가 시집감에, 아들 낳기를 바라지 않는 이가 없다. 이것이 인지상정이다.²⁾

위의 두 글은 17세기가 저물어갈 무렵 조선후기의 대문장가로 알려져 있는 金昌協(1651-1708)의 여성 애제문에서 읽을 수 있는 구절들이다. 첫 예문은 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 중에, 아래의 글은 누이의 죽음을 애도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강사

1) 김창협, 「祭亡女吳氏婦文」, 『農巖集』 권30, 7면, “人之有子, 莫不欲男多女小者, 常情也.”
 2) 김창협, 「李孺人哀辭」, 『농암집』 권30, 31면, “女子之嫁, 莫不願有子, 此人之情.”

하는 글 중에 나온다.

위의 두 예문은 김창협이 딸과 누이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기 위해 삼입한 구절들이지만, 17세기 후반기 조선 여성의 존재위상을 극명하게 알려주는 구절들이기도 하다. 여성은 그 출생이 요구되지 않았던 존재였다. 그리고 그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사람이면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생각이며 느낌, ‘人之常情’(원문에는 ‘常情’ 혹은 ‘人之情’)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의 죽음은 어떠하였을까. 조선시대 남성들이 남긴 대부분의 문집 속에는 벗이나 스승, 친지들의 죽음을 애도한 제문이나 묘지명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대개는 남성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들이다. 기대 속에 태어나고 자라나 자신의 이름으로 분명한 행적을 남기는 남성에게 비할 때, 여성의 죽음이란 개별적 의미가 희미했던 까닭이다. 이 또한 당시로서는 인지상정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김창협이 살았던 17세기에는 남성들이 남기는 여성애제문이 부쩍 증가하는 시기였다.³⁾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김창협은 17세기 후반의 문학사나 철학사에서 그 자리가 우뚝한 남성으로, 여성의 죽음을 애도한 글을 적지 않게 남겨 주었다. 그의 애제문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여성은 딸, 친누이, 조키누이, 제수, 숙모, 고모, 외할머니, 외종조모, 벗의 아내 등 다양하다.⁴⁾ 김창협은 이 모든 여성들의 죽음에 대하여 예의 없이 절절한 애도를 표하여 주었다.

3) 황수연, 「17세기 제망실문·제망녀문 연구」, 『한국한문학회연구』 30호, 한국한문학회, 2002.

4) 18 편의 墓誌銘 중 6편, 3편의 墓碣銘 중 2편, 6편의 墓表 중 3편, 6편의 哀辭 중 4편, 48편의 祭文 중 9편이, 3편의 祝壽文 중 1편이 각각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김창협의 여성애제문에 대한 연구로는, 딸에 대한 몇 편의 글을 자세하게 소개해 준 姜憇仙, 「아버지의 글로 남은 딸의 삶」, 『문헌과 해석』 19호(문헌과 해석사, 2002 여름)가 있고, 김창협의 묘지명의 미감을 논한 강혜신, 「農巖 金昌協의 墓誌銘 研究 -簡論의 美」, 『한국 고문의 이론과 전개-청담 김도련선생 정년기념논총』, 태학사, 1998, pp. 387-408 가 있다.

더욱이 그의 누이가 요절하였을 때 그것이 못내 아쉬워 자신을 포함한 남은 여섯 형제들이 수명을 감하여 누이의 수명에 보태 줄 수 없었던 것을 한탄하였고,⁵⁾ 아끼던 막내딸의 죽음 앞에서 ‘살아 가려진 삶이라, 죽음이 더욱 애달프다’고 하여⁶⁾ 여성의 죽음이 남긴 더욱 커다란 비애를 잘 드러내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딸이나 누이 등 혈연에 대한 애도문 속에 묻어 나오는 각별한 애정표현으로 여성의 존재가치에 대한 인식을 읽어내기는 부족하다. 또한 여성애제문의 양이 많다는 점으로 여성존재에 대한 인식의 심화를 추정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김창협이 오두인의 부인에 대하여 쓴 애제문은 그의 딸이나 누이를 향하여 쓴 것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오두인의 부인에 대한 묘갈명에서 김창협은 그 부인의 죽음을 애도한 후 그 벗이 그 이후로 취하였던 둘째 부인과 셋째 부인의 정황까지 길게 기록하였는데,⁷⁾ 이 경우에는 애도 속에 기록되는 의례적이고 공식적인 성격이 강하다.

본고에서는 이렇게 정서적 편차를 보이는 김창협의 여성애제문들을 두루 대상으로 하여, 김창협이 여성을 어떠한 태도로 바라보았는지 여성의 삶을 어떻게 기록하여 남겼는지에 대하여 살피고자 한다. 이 속에서 17세기 한 남성문인의 여성애제문 전반에 흐르는 여성인식을 밝혀보고자 한다.

애제문이란 한 사람의 죽음 앞에 쓰여지는 글이기에, 기본적으로 죽은 이의 영혼을 위로하고 죽은 이의 삶에서 칭송할 만한 내용을 위주로 하여 글을 꾸리게 된다. 김창협의 여성애제문들도 그 자체로 대상여성의

5) 김창협, 「喪亡妹文」, 『농암집』 권 29, 17면, “만약 우리 여섯 형제가 각각 그 수명을 줄여서 너의 명에 대속할 수 있다면 어찌 터럭하나라도 아까웠으랴만 하늘이 이내 오로지 너 한 사람만의 명을 일찍 죽게 하여 우리 형제들로 하여금 끝없는 슬픔에 잠기게 하니, 어찌된 일인가 (如使吾六人者, 各減其年數, 而可以贖汝之命也, 則寧有毫髮愛惜, 而天乃偏夭汝一人之命, 以爲吾兄弟無窮之戚, 何也.)”

6) 김창협, 「망녀오씨부묘지명」, 『농암집』 권27, 37면, “生鬻然, 死更惜”

7) 김창협, 「吳忠貞公元配閔夫人墓碣銘」, 『농암집』 권28, 10-11면.

삶에 대한 칭송이다. 칭송이란 한 인간의 삶에서 보자면 편파적인 보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칭송하는 입장에서 제시하는 잣대와 칭송에 사용한 언어들은 곧 칭송하는 입장의 의식 속에 자리한 포퓰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굴지의 문장가이자 한 학파에서 그 위치가 확고했던 김창협이 글에서 여성을 칭송한 언어와 개념들이라면, 당시 남성문인들이 서술할 수 있었던 여성에 대한 언어표상의 기본적 면모를 반영해 주리라 본다.

2. 여성 칭송의 틀

김창협이 여성애제문에서 여성의 삶을 기술할 때에는 견고한 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틀은 다음과 같다. ① 출생, ② 어린 시절, ③ 시집간 후, ④ 죽음이라는 삶의 네 단계이다. 각 단계에는 각각 요구되는 여성적 덕목이 있었고 그의 여성애제문에 대상이 된 여성들은 모두가 덕목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기술되었다.

① 태생 : 온화한 천성

김창협에게 애도되는 여성들은 대개 그의 집안 여성들이거나 그가 교유하는 집안의 여성들이었다. 내력 있는 명문가 출생이었으며 그 타고난 성품은 한결같이 온순하였다고 한다.

딸은 나면서부터 성격이 특별히 온화하고 공손하며 자애롭고 어질었다.⁸⁾

나의 누이는 나면서부터 빼어나고 똑똑함이 뛰어났다.⁹⁾

8) 김창협, 「亡女吳氏婦墓誌銘」, 『농암집』 권27, 35면, “女生質特溫恭慈良”

9) 김창협, 「亡妹哀辭」, 『농암집』 권30, 28면, “吾妹生而明秀敬慧絕特”.

사촌누이(從妹)는 나면서부터 정숙하고 효성스럽고 온순하여…¹⁰⁾

부인은 나면서부터 빼어나고 정숙하고 명석하였다.¹¹⁾

이와 같이 거의 모든 여성들은 공통적으로 ‘나면서부터(生而)’, 온화·공손하다. 여기에 경우에 따라 더해지는 덕목이 있다면 총명함이다. 김창협이 글 속에 국한하며 보자면, 온화한 천품에 대한 일률적 기술은 첫째 그녀들이 그 당시에 요구되던 여성의 삶을 수용하여 부덕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는 각각의 전체내용에 대한 암시적 제시로 기능할 것이며, 둘째 여성의 온순한 삶의 태도에 대한 칭송이라는 남성적 주제를 전달하는 것이다.

나아가, 김창협이 글에 나타나는 생태적인 여성본질에 대한 바람직한 형태의 고착은, 그에게 그리고 그의 시대에 고정된 ‘여성성(女性性)’을 보여준다. 위에 열거된 성품은 후천적으로 교육되기 이전에 이미 타고난 것이기에 그러하다. 온화·온순한 성질은 부덕(婦德)을 실행하기에 본질적으로 적절한 성질이고 타고난 것이기에 바뀌지 않을 안정성을 가진다.

② 어린 시절 : 早熟한 행실

온순한 천품을 가지고 태어난 여성들은 어린 아이 적부터 그 천품이 행실에 발휘된다. 김창협이 애제문은 이를 간단한 몇 글자로 기술하거나 혹은 에피소드를 삽입하여 현장감이 나게 구체화시켰다.

어려서 놀 때부터 형제들 간에 또한 화내는 모습이나 거스르는 말이 드물었으니.¹²⁾

10) 김창협, 「從妹劉氏婦墓誌銘」, 『농암집』 권27, 1면 “妹生而貞靜孝順”

11) 김창협, 「吳忠貞公 元配 閔夫人 墓碣銘」, 『농암집』 권28, 10면, “夫人生而隸秀淑哲”

12) 김창협, 「亡女吳氏婦墓誌銘」, 『농암집』 권27, “自幼嬉戲, 於兄弟間, 亦鮮有忿色違言”

그 어린 아이 때부터 말하고 행동하는 일체가 한결같이 어른과 같았으며...¹³⁾

어려서 총명하고 조숙하여 어른스러워 효도와 우애와 인자함과 너그러움이 갖추어져 남들보다 매우 나았다¹⁴⁾

부인은 어렸을 때 단정하고 너그러웠으며 우스갯소리 하는 일이 적었으며...¹⁵⁾

어머니가 일찍이 궤병을 앓게 되자, 겨우 너덧 살인데도 눈물을 흘리며 걱정하면서 말심부름을 하였다. 좀 자라서는 살림살이를 대신 맡았는데 집안을 꾸리는 데 부족한 것이 있으면 비녀 하나도 아낌없이 팔았고, 맛있는 음식 한 가지도 먼저 먹지 않았다.¹⁶⁾

그 여성들은 모두 어렸을 때, 심지어 너덧 살 때, 이미 어른(成人)과 다른 행동을 보여준다. 자신의 의식(衣食)은 돌보지 않고 가족들의 의식을 살피는 행위이다. 이 조숙(早熟)한 여아들은 한결같이 『소학』, 『가례』, 『여계서』 등을 익혔고, 이들은 이 책들의 내용을 익히기만 하면 즉각 실천에 옮겼다.

대개 반씨의 『여계서』를 매우 좋아하여 식견이 밝고 일처리가 구차하지 않았다.¹⁷⁾

어려서 『소학』과 『가례』를 배움에 대략 그 대의를 통달하고 스스로를 내

- 13) 김창협, 「亡妹哀辭」 『농암집』 권30, 28면, “自其爲孩提, 言動舉止, 壹似成人”
- 14) 김창협, 「李觀察塲女墓表」 『농암집』 권 28, 30면, “幼聰慧早成, 孝友仁恕, 俱過人遠深”
- 15) 김창협, 「吳忠貞公繼配金夫人墓碣銘」 『농암집』 권 29, 11면, “夫人幼卽端惠寡笑語”
- 16) 김창협, 「從妹劉氏婦墓誌銘」, 『농암집』 권27 “母夫人嘗患耳聾, 甫數勢耳, 已能涕泣憂念, 傳道言語. 稍長 卽代幹其蠹, 嘗值家用缺 只一釵賣之無所愛, 一味之甘不先入.”
- 17) 김창협, 「從妹劉氏婦墓誌銘」 『농암집』 권27, “蓋深好班氏女戒書, 其見識明而行事不苟.”

세우지 않았다.¹⁸⁾

그 모든 조숙의 양상은 그녀들의 의식이나 성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시각화되고 효과적 실효를 거둔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녀들은 어린 아이 때부터 주변에 덕을 베푸는 실행을 하였다는 것이 칭송의 공통된 내용이었다.

③ 시집간 후, 婦德의 실현

이렇게 자라난 여아들이 열 서너 살이 되면 결혼을 한다. 김창협은 여성이 시집에 간다는 것은 여성이 여성적 인덕을 펼칠 수 있는 장을 얻는 것이라 하였다.

여자가 시집가는 것은 남자가 조정에 드는 것과 같다. 이가 아니면 그 아름다운 덕을 펼칠 수 없기 때문이다.¹⁹⁾

여성의 시집살이는 남성의 관직생활과 같이 덕성과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장이며 기회이다. 그리하여 혹 시집가기 전에 죽은 여성에 대하여는 그 아름다운 덕을 후세에 남기지 못할까 가장 안타깝게 기술하였다.²⁰⁾ 시집간 후 그녀가 행하는 부덕의 공헌이야말로 후세에 이르도록 공인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이 공간에 고난이 많다면 여성의 부덕은 빛을 발하게 된다. 그래서인지 김창협은 여성이 시집간 후의 삶을 기술할 때 대개 그녀에게 어려움은 준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유복한 태생으로 사랑 받고 자란 출생의 분위기와는 극단적 대조를 이

18) 김창협, 「吳忠貞公元配閔夫人墓碣銘」, 『농암집』 권10, 22면 “少受小學家禮, 略通大義 節不以自銜.”

19) 김창협, 「亡妹哀辭」, 『농암집』 30권, 29면, “婦人之歸夫家也, 猶士之仕於朝也. 非是則 無以見其德美焉.”

20) 김창협, 「李觀察孀女墓表」, 『농암집』 권28, 13면.

룬다.

김창협은 그의 사촌누이가 어려운 시집으로 들어가 집안의 행사들을 알아서 처리하면서 집안의 경제도 일구고 또 남편이 편하게 공부하도록 섬기며, 제 혼자 새벽부터 밤까지 부지런히 일한 모습을 꼭진히 묘사하였다.

유군(죽은 누이의 남편)이 어려서 부모를 잃었고 큰형이 근근히 살림을 맡았는데 큰형부부가 모두 죽었다. 유군 또한 아위고 병이 잦았으며 오직 어린 동생 하나와 외롭게 함께 살았다. 설날, 삼복, 납일 등에도 제사를 지낼 수 없는 지경이었다. 누이가 시집가서야 유군은 비로소 집다운 집을 꾸릴 수 있었다. … 대개 (누이는) 4년 동안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며 힘써 일하였으니 그 부지런함은 지극하였다. 그런데도 유군에게는 재물에 대한 말은 꺼내지 않았다. 재물과 집을 일으키면서 유군으로 하여금 집안 일을 잊게 하였으니 어질지(賢) 아니하면 그리할 수 있겠는가?²¹⁾

그녀가 만약 이 글대로 혹사하였다면, 아마 그녀의 요절은 이 고생 때문이겠지만, 김창협은 누이의 고생이 극심하였음을 묘사함으로써 ‘어짚(賢)’이란 한 단어의 칭송을 의미 있게 부각시켰다.

김창협의 동생 김창업(金昌業)의 아내 이씨의 묘지명에서도, 김창협은 이씨가 시집온 후 고생스러움과 어질게 극복한 내용을 서술하여 이씨의 ‘어짚’을 알려주고자 하였다. 여기서 김창협은 그녀가 종실가의 태생이라는 점을 알려 시집살이를 잘 하는 덕을 부각시켰다.

대개 유인 이씨가 우리 집에 시집왔을 때 시누이와 동서 등이 다섯 명이었는데 이 다섯 명은 제각각 품성이 느리거나 급하고 취향이 달랐다. 그러나

21) 김창협, 『從妹俞氏婦墓誌銘』, 『농암집』 권27, 1면, “始君幼喪其父母, 伯兄甫受室, 而夫婦俱死. 君又癯然多病, 而獨與一弱弟, 伶俜同居. 歲時伏臘, 幾無以祭祀. 及妹婦, 而君始得成其爲家. … 蓋四年之間, 夙興夜寐, 黽勉拮据, 勤亦至矣. 而財賄之談, 未嘗一及於君, 是不助君成家, 而又使君忘其家矣. 不賢而能若是乎.”

유인이 그 사이에 처하여 한결같이 부드럽고 온순함(和順)으로 하여 그 다섯 명으로 하여금 시종 원망이 없게 하였으니, … 그러나 유인 이씨는 종실가의 딸이라 선조대왕에게는 실로 그 사세손이었으며 그 아버 익풍군 이숙(李濬)에게는 외동딸이었으니, 나면서 부귀하였고 귀염받고 사랑 받음이 심하였다. 그러나 시집과 부덕을 행함에 조심스럽고 신중하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하였다.²²⁾

유인 이씨가 시집은 공간의 어려움과 이를 화순으로 이겨내고 조심스럽게 어른을 받든 모습을 기록하였다. 김창협은 이어 이씨가 더욱 힘든 나날을 근면과 효경으로 이겨나간 점을 기술하였다. 기사환국 때 이씨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영평에 들어가 산 길, 검박하게 살림을 꾸려나간 일, 혹은 산골짜기 농가의 집에서처럼 몸소 들밥을 내어가고 채마밭을 가꾸고 소를 먹이고 또한 누에치던 모습 등을 열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산골생활의 어려움을 유인 이씨는 마치 익숙한 일을 하듯 ‘편안히 여졌다’고 김창협은 기술하였다.²³⁾ 고난을 어질게 이겨나간 모습을 강조한 것이다.

오두인(吳斗寅, 1624-1703)은 세 부인을 맞아들였다. 김창협은 오두인의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의 죽음에 모두 묘갈명을 썼다. 김창협은 이들의 시집은 후 행덕에 대하여, 첫째 부인이 시댁어른을 지성으로 모시고 상례를 치른 점을, 둘째 부인이 시댁과 남편을 섬기고 첫째 부인이 남긴 아이들을 잘 살핀 것을 각각 기술하였다. 다음은 둘째 부인에 대한 묘갈명의 일부이다.

시집와서는 공경(敬)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였고, 순종(順)으로 남편을 섬

22) 김창협, 「四嫂李孺人墓誌銘」, 『농암집』 권27, 8면, “蓋孺人入吾門, 而其爲嫉妬者五人, 五人者, 其資性緩急, 氣味酸鹹, 各不同. 然孺人處其間, 壹以和順, 能使五人者終始無怨恨…然孺人宗室女也. 於宣祖大王, 實爲四世孫, 而於其考益豐君諱濬爲獨女. 生富貴嬌愛甚. 然及其執婦道, 小心畏謹, 甚於他人.”

23) 김창협, 위의 글, “其窮約已甚, 而孺人安之若素習.”

졌으며, 첫째 부인의 자녀들 돌보기를 은혜롭게 하고 사랑하기를 지극히 돈독하게 하여 의복과 음식은 반드시 자신의 아이보다 먼저 챙겨주었다.²⁴⁾

그 외에도 시집가서 겪게 된 이색적인 고난은 반드시 기술하였다. 그 고난들은 당시 그 여성들에게는 비극과도 같은 삶 속의 어려움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김창협이 글 속에서 그녀들은 아무런 심적 고통을 느끼지 않았고 편안한 모습으로 그 모든 것을 처리하였다.

④ 죽음, 주변의 칭송

김창협은 각 여성들의 죽음에 대하여 대개 그 요인이 되었던 구체적 병상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그 ‘은화’한 성품의 여성들이 어떠한 연유로 그런 병에 걸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고민은 없다. 그보다는 그 여성들이 죽음에 대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유난히 애도하였다는 내용을 넣어 여성들 삶의 덕행을 객관화 시키고자 하였다.

누이의 현숙함은 본래 내가 아는 터일뿐더러, 유군(누이의 남편)의 사람됨이 다소 뻗뻗하여 구차하게 애정에 몰령한 자가 아닌데도 이처럼 애도하는 것을 보니, 누이의 현숙함을 더욱 잘 알 수 있다.²⁵⁾

김창협이 누이는 첫 딸을 낳고 곧 죽었다. 병명은 유종(乳腫 혹은 유질乳疾)이었다. 배후의 원인이라면 산모의 유방관리를 잘 못한 산후조리의 부실이다. 유종으로 죽음에 이를 지경일 때 그 고통이 어떠했는지 김창협은 상상할 수 있었을까. 누이가 죽은 후 남은 갓난 딸아이도 며칠 못가 죽고 말았다. 이 갓 태어난 여자아이는 제대로 돌봐지지 않았던 이유로

24) 김창협, 「吳忠貞公繼配金夫人墓碣銘」, 『농암집』 권28, 11-12면, “及嫁事尊章以敬, 承夫子以順, 撫視篤至. 由衣服飲食, 必先己子.”

25) 김창협, 「從妹俞氏婦墓誌銘」, 『농암집』 권27, 1면, “妹之賢, 固吾之所知, 而俞君為人, 又耿介少可, 非苟矚於情愛者也. 以君悼念之切如此也.”

죽었을 것이다. 이가 남자아이였다면, 그 죽음에 대한 서술이 이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²⁶⁾ 두 어린 여성이 연이어 생명을 잃었다. 이때 아이를 낳은 김창협은 누이는 겨우 16세였다고 한다. 어린 아내와 갓 태어난 딸의 죽음에 대하여 남편의 당혹스러움과 슬픔은 당연한 일이다. 김창협은 누이 남편의 애도를 누이의 부덕에 대한 보상으로 보았다. 남편의 애도를 여성 평가의 한 증거로 삼은 셈이다.

이 외에도, 김창협은 오두인의 첫째 부인을 기리고자, 부인이 시댁공경을 잘하여 효경(孝敬)으로 주변의 칭송을 받았으며 그녀가 죽자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하였다. 이 외에도 김창협은 일가친척이 자신의 자식을 잃은 양 슬퍼하였다는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이 여성들의 공손한 태도와 덕성스러운 행실을 입증해 보이고자 하였다.

3. 여성 이미지의 정형화

김창협은 애제문 속에 기록된 여성들은 그 태생에서 죽음까지 완전한 품행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 여성들의 모습을 읽고 있노라면, 그들의 이미지가 정형화된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느끼게 된다. 김창협이 여성의 평소 모습을 담은 다음과 같은 글들은 이러한 이미지 형성에 기여한다.

부인은 온화하고 공손하고 유순하였고, 효성과 우애가 있고 인자하여, 다

26) 김창협, 「祭亡妹文」, 『농암집』 권 29, 15면, “경신년 음력 12월 초사흘 을축일, 나의 누이 유인 김씨가 산고 속에서 췌병으로 죽었다. 그 후 엿새가 지나 태어난 딸 또한 죽었다. 아아 슬프다. 그 나이 오십이 아니되면 요사라 하거늘 이제 나의 누이는 겨우 16세다. 그의 죽음은 아이를 낳아 키우려다 끝이 났는데 그 아이마저 보존하지 못하였으니, 아아 얼마나 가혹한 일인가 (維庚申十二月初四日乙丑, 吾妹孺人金氏, 以乳病卒於蓐. 後六日, 所生女亦死. 嗚呼哀哉. 人年自五十以下, 已謂之夭. 而今吾妹則廬十有六年矣. 其死也, 以產育而終亦不保其遺孩. 嗚呼, 又何酷也.)”

른 사람과 말할 때는 상대방에게 상처 줄까 우려하였다.²⁷⁾

무리 속에서 나고 들 때는 언제나 아무 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하며 오로지 여자로서 해야 할 일만을 열심히 하였다.²⁸⁾

평소 말이 별로 없고 허황되거나 화려한 것을 즐기지 않았고 옆길로 새지 않았으며, 감정에 지나치는 일이 없었다. 이익을 쫓아 의를 저버리는 자를 보면 물들까 조심하였다.²⁹⁾

가만히 보니, 부인은 성품과 인식력이 총명하고 사리에 통하였으며 제멋대로 하는 일이 없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인자하고 너그러웠으며 감정에 지나침이 없었다.³⁰⁾

절대로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다.³¹⁾

이와 같이 그의 칭송 속에 재현된 여성들은 한결같이 유순하고 말이 없다. 늘 공경스런 태도로 주변을 살폈으며,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어 주장하지 않았다. 자신의 사사로운 정감을 내보이는 일이 없었다. 조용하고 묵묵하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완전히 감추고 덕행을 실현하였다.

그녀들의 겉모습은 어떠하였을까. 김창협이 여성에게문 속에는 이 점에 대한 기술은 매우 드물다. 다만 한결같이 소박하여 자신의 외모를 꾸미지 않았다는 점은 검소한 덕목의 하나로 소개되면서 여성의 외모가 표

27) 김창협, 「貞夫人延安金氏墓誌銘」, 『농암집』 권27, 11면, “夫人溫恭柔婉, 孝友慈仁, 與人語, 如恐傷之.”

28) 김창협, 「亡女吳氏婦墓誌銘」, 『농암집』 권27, 36면, “郡居遐遜, 壹如無能者, 唯斤斤服女事.”

29) 김창협, 「從妹劉氏婦墓誌銘」, 『농암집』 권27, 2면, “平居簡默, 不喜浮華, 不惑左道, 與人款厚, 而無過情之事. 見有趣利背義者, 若將洗焉.”

30) 김창협, 「貞夫人全義李氏墓誌銘」, 『농암집』 권27, 26면. “竊見夫人性識聰明, 達於事理, 而不以自由, 與人仁恕而無過情之事.”

31) 김창협, 「吳忠貞公元配閔夫人墓碣銘」, 『농암집』 권28, 10면, “絕不以自衒”

현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이미 죽어, 그 상자를 들여다보니 시집을 때 입었던 옷과 평상시 입었던 옷 약간 뿐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평소에 스스로에 대하여 검약하였던 것을 더욱 잘 알게 되었다.³²⁾

(나의 딸은) 세속 부녀의 태가 나게 자신을 꾸미는 것은 유난히 못하였다.³³⁾

(나의 백모는) 대개 그 품성이 질박하여 소박함을 지향하였다. 평상시 거할 때의 옷과 물건 먹고 쓰는 것이 절대 화려하지 않았다. 집안의 잔치가 있을 때나 손님들로 가득 할 때에도 회고 푸른 비단이나 푸른 옥 등으로 꾸며 더하지 않았다. 비단이나 보석 보기를 싫어하듯이 하였다.³⁴⁾

이상과 같이 여성들은 질박하여 꾸미지 않았다. 애제문 속의 여성들은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지 않았듯이, 외모 또한 꾸미어 드러내지 않는 표리조응의 태도를 가졌던 것으로 서술된 것이다.

이렇듯 여성에 대한 일체의 묘사는 성품과 태도에 집중되었고 여성의 신체 외모에 대한 것은 매우 드물었다.

용모가 빼어남은 이마가 시원스럽고 통통하였다.³⁵⁾

김창협이 위와 같이 묘사한 여성은 김창협의 누이동생이다. 김창협의 동생 김창흠(金昌翕)의 글에서는 김창집의 딸, 즉 조카딸의 외모를 묘사한 구절을 겨우 찾아볼 수 있다.

32) 김창협, 「四嫂李孺人墓誌銘」, 『농암집』 권27, 9면, “既卒, 視其篋, 唯嫁衣與常所服若干. 人益知其平日自奉之儉.”

33) 김창협, 「亡女吳氏婦墓誌銘」, 『농암집』 권 27, 36면, “獨不能便給修飾爲世俗婦女態.”

34) 김창협, 「祭伯母文」, 『농암집』 권29, 23면, “蓋其資性簡質, 志向朴素, 平居衣物服用, 絕不爲華靡, 雖門內燕集, 賓客盈堂, 而縞縑青碧, 亦未嘗加飾, 顧視綺繡珠翠如不屑也.”

35) 김창협, 「祭亡妹文」, 『농암집』 권 29, 16면, “容貌之秀, 犀角而豐盈.”

모습은 풍만하였다.³⁶⁾

이상의 두 경우 모두 그 외모의 풍만함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칭송된 양상이 공통적임을 알 수 있고, 그나마 이러한 여성의 외모는 사실상 여성의 온후한 내면, 혹은 후덕한 관상을 반영하는 듯한 묘사로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곡진하다 할 수 없다.

4. 남성적 덕목의 출입

사실상 조선시대 사대부 집안의 男性들에게 부여된 의무도 만만한 것은 아니었다. 독서와 암기, 문장 수련, 역사와 정치의 흐름 속에서 자기가 치와 자기위치의 정립, 그리고 실현, 그것은 사대부 남성이라면 지녀야 할 덕목이었다. 남성은 강인한 의지와 주도적 자세로 노력해야 했다.³⁷⁾ 여성성을 고수하는 여성들은 이러한 남성의 의무를 도와주는 역할에 만족하였다. 그런데 김창협은 여성애제문 속에서 남성의 덕목으로 여성을 칭송하며 기록하는 부분이 있어 흥미롭다.

김창협은 자신의 막내딸 金雲이 여느 남성 못지 않은 학문적 재능을 지닌 여성이었다는 점을 특기하였다. 주변의 친척들이 그녀를 ‘女士’라 불렀고 다른 여성들은 그것을 부러워하였다는 사실을³⁸⁾ 자랑스럽게 기록하였다. ‘여사’란 말은, 김창협이 자신의 딸에 대하여 ‘여자의 몸에 유교 선비의 학식이라(女子身, 儒士識)’라고 명을 쓴 데서 알 수 있듯이, 여성

36) 金昌翁, 「姪女李氏婦墓地銘」, 『三淵集』 권28, 36면, “質厚貌豐.”

37) 南恩暉, 「조선중기 鄭斗卿의 漢詩에 나타난 男性 형상」, 『이화어문학회』 (월인, 2001) 참조.

38) ‘너의 백조부이신 곡운선생(金壽增)과 너의 숙부인 삼연자(金昌翁)가 매양 너를 불러다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하였고, 너를 여사로 대하여 집안의 여러 여자들은 부러워하지 않는 이가 없었지 (伯祖谷雲先生·叔父三淵子, 每愛呼與語, 待以女士, 一家諸女, 莫敢望).’ 金昌協, 「亡女吳氏婦墓地銘」, 『농암집』 권27, 36면,

의 몸에 남성의 학식이 있는 경우에 대한 지칭인 듯 보인다. 이에 입각하여 말하자면, 그들이 부른 여사라는 특별한 지칭 속에는 이미 여성과 남성의 덕목을 구별짓는 기준이 있으며, 또한 남성적 덕목을 지닌 비여성적 여성에 대한 구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때 딸의 나이는 11세였다. … 문리가 문득 트이고 스스로 『주자강목』을 읽음에 막힘이 없었다. 하루는 문을 닫고 손으로 책을 들고 폭 빠져들어 침식을 돌보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가상하고도 기특하게 여겼다. 그리하여 금하지 않고 말하였다. “이 딸아이는 성품이 고요하고 질박하니, 글을 알더라도 탈이 없으리라.”

이로 인하여 『논어』와 『상서』를 간단히 배우고 또한 끝내지 아니하였으나 그 이해력이 명철하여 육에 경전을 두루 읽어도 막지 못하였다. 내가 궁벽하게 거하고 아들 승겸은 아직 어린 터라 아침 저녁내 곁을 조용히 따랐으니, 고금의 치란과 성현의 언행을 논하는 것으로 규중의 즐거움으로 삼은 이는 오직 나의 딸아이뿐이리라!³⁹⁾

김창협은 딸의 독서수준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자 책제목까지 일일이 명시하였다. 그의 애제문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독서목록이 오로지 여성 계훈에 국한된 서적들이었던 점에 비교하면 이색적이다. 또한 남성담론의 전유물이었을 역사 속 치란이나 성현의 언행을 딸과 함께 논한 일도 김창협은 잊을 수 없다. 그리하여 여성의 몸으로 남성적 담론을 낙으로 누린 이는 오직 나의 딸 하나뿐일 것이라 기록하였다. 이러한 기록 속에는 사뭇 뿌듯한 아버지의 심정이 담겨 있다.

그러나 김창협은 딸에 대한 칭송은 다른 곳으로 귀결되고 있었다. 김창협이 딸아이에게 남성적 책읽기를 금지시키지 않고 허락하였던 이유는

39) 김창협, 「亡女吳氏婦墓地銘」, 『농암집』 권27, 35면, “時女年十一矣. … 文理輒通, 能自讀朱子綱目無所礙. 日閉戶手卷, 兀然潛玩, 幾不省寐飯, 居士憐而奇之. 故不禁曰, “是女性靜而拙, 雖識書, 無害也.” 因略授論語尚書 亦不竟. 然其識解明徹, 雖徧讀六藝經傳者, 不能絕也. 居士既窮居, 崇謙尚幼, 其所朝夕左右從容, 論古今治亂聖賢言行, 以爲閨門之樂者, 維女而已.”

딸이 고요하고 질박한 여성성을 소유하였기 때문이라고 명시해 두는 것을 이미 잊지 않았었다. 이후 딸의 시집간 후 모습에 대한 기록은 그의 칭송의 귀결점을 잘 보여준다. 학문의 길을 단호히 접고 며느리와 아내로서 충실한 모습을 취하였다는 내용이다.

오씨에게 시집 간 후 7 년 동안 오씨 집안 사람들은 딸이 책을 보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하였다. 명중(딸의 남편)도 못 보았다. 그 아이의 야무짐이 이와 같았다. 일찍이 형제들과 사사로이 대화를 나눌 때, “제가 만약 남자로 태어났더라면, 다른 소원은 없어요. 다만 깊은 산 속에 집을 짓고 수백 권의 책을 쌓아두고 그 가운데 조용히 늙어 가면 충분할 거예요”라 하였다. 그러나 다시 명중과 말할 때는 문득 이런 뜻은 미루어 두고, “진실로 이리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들밤을 내어가 누에를 치며 당신의 옷과 음식을 이바지하겠어요”라 하고, 매양 남편에게 제 때 힘써 공부하여 경술과 문장으로 스스로 설 것을 권면하였다.⁴⁰⁾

김창협이 책읽기를 허락한 근거, 즉 남성의 담론을 익혀도 여성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고요질박한 여성성을 가졌다는 평가를 운은 보기 좋게 증명해 주었다. 책 속에서 늙고 싶은 그녀의 소원은 ‘만약 남자라면’이라는 당시로서는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전제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담이었을 뿐이고, 그녀의 실제 삶 속에서는 그런 소원을 물리치고 남편에게 헌신적으로 봉양하고자 하였다. 김창협이 이를 기술한 것은 물론 이에 대한 칭송이다. 말하자면 남성적 덕목의 축에서 여성적 덕목의 축으로 글은 급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 속에서 김창협은 갈등이 없다. 김창협이 글 속에서 김창협이 남성적 덕목으로 운을 칭송한 것은 잠시 들어왔다 나간 출입이었을 뿐이다.

40) 김창협, 위의 글에 이어짐, “歸吳氏七年, 吳氏之人, 未嘗見其一視書, 雖明仲亦然, 其精密如此. 願嘗私謂兄弟, ‘使吾得爲男子, 無他願. 但願結屋深山, 皮書百千卷, 蕭然老其中, 足矣.’ 及與明仲語, 輒推此意而告之, ‘誠能爲此, 吾當饑耕餒蠶, 以供子衣食.’ 又每勸明仲及時力學, 以經術文章自立.”

이 외에 대상여성이 비상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인상깊게 칭송해 주었다. 현대과학에서 여성의 기억력은 뇌구조상 특수한 여성의 능력으로 조사된 바도 있는 일이지만, 문장을 기억하고 암송하는 공부를 업으로 삼았던 당시 남성문인들이 보기에, 스쳐간 사소한 일들을 낱낱이 기억해내는 여성들의 기억력은 경탄할 만한 것이었다.

(정부인은) 鑑識이 明敏하여 고금에 통달하였고, 한 번 들은 일은 종신도 록 잊지 않았다.⁴¹⁾

우리 형제는 남장부가 여섯이고 누이만이 홀로 여성이었다. 그러나 누이가 남성이 아닌 것을 애석해 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 총명함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눈으로 보고 귀로들은 것이면 사소한 일이라도 잊지 않았다. 여러 형제들은 서로 말하다 혹 일이 오래되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곧 누이에게 물어보았다. 누이는 곧 일일이 지적하며 어느 날 언제의 일로 이러한 곡절의 일이었다고 말하였다. 나중에 확인해 보면 누이의 말은 열 가지 중 두어 개 빠뜨렸을 뿐이었다.⁴²⁾

이러한 여성들의 기억력이 남성들에겐 진귀하게 여겨졌다. 또한 김창협 의 형제들은 한결같이 누이의 기억력을 존중하여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아깝게 여겼다. 나아가 詩書를 배우라 권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형제들은 누이의 총명함을 아깝게 여겨 일찍이 詩書 배우기를 바랬다. 그러나 누이는 거절하고 달가와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바느질하는 따위의 여자의 할 일에만 유난히 힘썼다.⁴³⁾

41) 김창협, 「貞夫人延安金氏墓誌銘」, 『농암집』 권27, 11면, “其鑑識明敏, 通達古今, 事一經耳, 終身不忘.”

42) 김창협, 「亡妹哀辭」, 『농암집』 30권 25면, “吾兄弟丈夫六人, 而妹又爲獨女. 然未嘗不惜其不爲男也. 其聰明絕人, 耳目所涉, 雖細事亦不忘. 諸兄弟相語, 或事有久遠不可記者, 輒以問妹. 妹卽指別 言某日某時事曲折如此. 徐以驗之, 十不失二三也.”

43) 김창협, 위의 글에 이어짐, “諸兄弟愛其聰明, 嘗欲授以詩書, 輒辭謝不肯, 而獨力於

김창협은 남성적 덕목에서 누이를 칭송하고 있었다. 시서배우기를 권장하는 대목은 김창협 집안의 적극적인 여성교육관을 보여주는 듯도 하다. 그러나 누이는 단호하게 거절하였다는 기록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기록되는 순간 김창협의 칭송 잣대는 재빠르게 여성적 덕목으로 옮겨가 있다. 여기서도 김창협에게 별 아쉬움이나 갈등이 없다. 오히려 누이의 단호한 거절과 여공예의 근면에 대한 기록은 여성애제문으로서 진행하여야 할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궤도로의 진입이었을 것이다.

여성의 사리분별력이 뛰어나고 취사선택의 결정이 분명하다면 이는 어떠할까. 온후하고 공경스럽게 남성을 섬겨야 할 여성이 판단력이 뛰어나다면 여성적 덕목이 될 수 없다. 주도적인 입장에 있어야 할 남성의 덕목이기 때문이다. 벗의 딸이 그러하였다고 한다.

일의 이치가 마땅한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나 취할 것인지 버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리고 연약한 여성들과 달랐다. 이에 (부친인) 관찰공이 이 점을 매우 아끼며 이 아이가 남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늘 안타깝게 여겼다.⁴⁴⁾

죽은 여성의 애제문에 기록된 위 글은 분명히 그 여성을 칭송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이 남성의 덕목이다. 이 점을 그들도 인식하고 있었다. 그저 남자로 태어나지 못했으니 어디에 크게 쓰이겠는가 하는 한탄이 그 아버지 김창협에게 공통된 반응이었다. 이는 곧 그러한 덕목을 집안의 남성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 다름 아니다. 김창협은 이 여성의 효성을 칭송하는 것으로 글을 이끌어 애제문을 맺었다.

남성이 남성적 덕목으로 여성을 칭송한 것은 언제나 칭송의 종착점이 아니었다.

女紅縫紉之事.”

44) 김창협, 「李觀察孀女墓表」, 『농암집』 권28, 13면, “至其辨事理當否, 而決於取捨, 尤不類小弱女. 以此 觀察公甚愛之, 每惜其不爲男也.”

그러나 흥미로운 것이 있다. 여성적 덕목에 충실한 칭송에서는 모든 여성들이 천편일률적 모습이라 교감이 불가능한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남성적 덕목의 칭송이 출입하는 지점에서는 부분적이거나 그 여성의 개성이 혹은 그 여성이 실재하였던 인간이었다는 것이 느껴진다. 당시의 남성이 제시한 여성적 덕목으로는 인간이 묘사될 수 없었기 때문일까.

5. 남성의 재현, 여성의 존재

모든 傳記文들이란 입전한 대상인물의 삶을 온전하게는 살려내지 못한다고 한다. 전기문의 많은 부분은 서술하는 사람의 시각과 판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이다. 하물며 사회적으로 판이하게 다른 종류의 삶을 산 남성이 그들과 다른 공간에서 살아간 여성들의 삶을 어떻게 온전히 살려낼 수 있겠는가. 집안의 여성이 아닌 경우라면 그 삶을 전해들은 대로 기록해야 하니 실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김창협이 기록에 남은 여성의 삶이란 그녀들의 삶이 묘사 되었다기 보다는 김창협이 칭송할 만한 여성으로 재현해 낸 모습이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그가 애제문의 형식을 빌어 재현해 준 여성들의 삶이란, 유복한 명문가 태생으로 태어나, 유순한 성품을 천성으로 지니고 있었으며, 어린 시절에 조숙한 행실을 보여주고(혹은 비상한 기억력이나 학문적 취향을 보여주었으나), 시집가서는 온갖 고난을 곳곳이 견디며 어질게 처신하고 병들어 인생을 마감한 여성들이다. 적어도 그의 애제문을 통하여 그 여성들의 일생들을 읽고 있노라면, 너리에 새겨지는 여성들의 이미지는 천편일률로 동일하다. 주위를 보살피는 아이, 시부모와 남편의 편안함을 뒷받쳐 주느라 여념이 없는 며느리며 아내, 제 몸이 고생스럽고 제 몸이 병들

어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표현하지 않는 묵묵함, 무어 그리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무감각함, 그리고 굳이 상상하자면 이마는 흰하고 다소 풍만한 모습. 김창협이 여성칭송에 부여된 잣대와 언어의 틀은 모든 여성들을 통일적 이미지로 재현시켜 주었다.

생각할수록, 그 여성들의 실체를 알 수 없다. 그것들을 알 수 없는 이유는 김창협이 허술하게 기술하였거나 거짓되게 진술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없다. 그는 그 시대의 여성관에 충실한 가치관을 가지고 여성의 삶을 바라보았고 또한 애제문 작성의 규율에도 시종일관 성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그것은 그 당시 남성의 시각과 언어가 진실을 살피기 보다는 충실하게 고수해야 할 원칙들에 더욱 지배받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리하여 당시 애제문 속에 기록된 남성의 여성 재현 속에서 우리는 여성의 존재를 찾을 길이 없다. 이 점은 17세기에는 여성에 대한 애제문의 수량적 증가 또한 여성의 존재에 대한 남성인식의 향상과는 별상관이 없을 가능성을 노정 시킨다. 여성의 삶을 가부장적 질서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일종의 제도적 계략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정이 오히려 가능해진다. 증가된 여성애제문들이 반복하여 제시하는 여성의 삶은 결국 당시 요구되는 여성의 삶에 대한 반복적 제시와 강요로 작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많은 애제문과 그 속에 등장하는 많은 여성의 삶 속에서 진정한 그들의 존재 상을 찾는 것은 포기할 것인가. 여기서 김창협이 보여주는 틈새를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다. 김창협이 남성의 덕목을 잣대로 출입할 때, 혹 그토록 아끼던 막내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 가운데 딸에 대한 숨기지 못할 애정과 딸의 죽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통탄을 토로할 때 그러한 틈새를 남겨놓았다. 최고 명문가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나 남성 못지 않게 학문을 익혔고 학문적 재능을 인정받아 여사라는 칭송까지 들었던 그 여성, 김창협의 딸이

“저는 여자라 이 세상에 아무런 공덕도 드러낼 수 없음이 한스러우니, 차라리 일찍 죽어 제 아버님의 글 몇 줄을 얻어 묘석에 새기는 것만 못합니다.”⁴⁵⁾

라고 한 이 한 마디가 김창협이 쓴 딸의 묘지명에 온전하게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대문장가 아버지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찬사이면서 나아가 여성의 존재위상에 대한 당시 여성의 처절한 자존심이었고, 여성의 존재상을 넘어 그 내면까지 드러내놓은 구절이었다. 그러나 아버였던 김창협의 입장에서 보자면 부모보다 먼저 죽길 바란다는 딸아이의 말이 맹랑하였을 것이고, 애제문 작성자로서 보아도 묵묵함으로 일관되어야 할 여성성에 어이없이 어긋나는 부분일텐데. 딸아이의 그 말이 사실이 된 운명 앞에서 김창협은 딸아이가 남긴 이 맹랑한 말을 그대로 토로하고 말았다. 놀랍게도 그녀의 말대로 그녀의 존재는 아버의 글 한 줄 속에서 살아남아 현대 여성의 심금을 울려준다.⁴⁶⁾ 다만 이는 당시 남성으로서의 여성재현 원칙에서 보자면 분명히 어긋하는 부분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틈새의 존재는 그 원칙들이 남성들에게도 버거운 작위적 원칙이었던 것을 보여주는 단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강혜선, 「아버지의 글로 남은 딸의 삶」, 『문헌과 해석』 19호, 문헌과 해석사, 2002 여름.
- _____, 「조선후기 여성묘주 묘지명의 문학성에 대한 연구」, 『한국한문학 연구』 30호, 한국한문학회.
- 남은경, 「조선중기 鄭斗卿의 한시에 나타난 남성 형상」, 『우리 문학의 여성성, 남성성』, 이화어문학회, 월인, 2002

45) 김창협, 『농암집』 권27, 37면, “吾女子也, 恨無功德見於世, 無寧蚤死得吾父數行文以鐫墓石”.

46) 강혜선, 「아버지의 글로 남은 딸의 삶」, (주 4) 참조.

- 이은영, 「조선초기 제문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2001.
황수연, 「17세기 제망실문·제망녀문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30호, 한국한문학회, 2002.
金昌協, 『農巖集』, 한국문집총간 161, 162.
金昌翁, 『三淵集』, 한국문집총간 163, 164, 165.

투고일 2002. 12.27 심사시작일 2003. 1.6 심사완료일 2003. 1.18

Abstract

Kim Chang-heop's representation of woman's life ; the formula and the crack

Kho, Youen-hee

Kim Chang-heop, a great writer in late 17th century in Choson period, has written a lot of funeral orations for women. In his funeral orations, he recorded each life of woman, showing her virtues and grace character. The most interesting fact that my essay focused on is the fact that the women's lives in his funeral orations are very similar with one another. So it seems that the lives of women represented in his writings were re-made up in terms of his estimation of woman.

Some formulas were found in his representation of woman. First, the woman was born docile and genile. Second, she was a precocious child who looked after her parents and the other members of her family. Third, she went through a hard time to support her family-in law after her marriage, without a murmur. At the end everyone spoke highly of her after her death.

The women in his funeral orations showed an image united. They never express their emotions, and they are not talkative. And they led very simple lives to leave nothing luxurious. They have generous images with full faces.

Sometimes Kim Chang-heop admired special abilities of the women. For example, a woman had a good memory and another woman has an outstanding scholastic ability. But he didn't forget to record that

even the competent women did obey her husband and did not be found reading books.

However we can find a crack of the strick formulas by Kim Chang-heop's representation of woman. When he faced his daughter's death, he missed his rule of showing the docile character of woman. He quoted the daughter's outrageous bewailment that she desired to die earlier than him. She thought that she could be remembered well only through her father's writing for her death, and that she couldn't be recorded for herself because she was just a woman. Kim Chang-heop couldn't help neglecting his strick rule in front of realizing of his daughter's earlier death like her bewailment. And through his quotation we can see the real life and real words of a woman who lived in that period. Discovering of the crack seems to be significant in that the strick way to make up the female's life in that period were so artificial and not natural that even the Male, the beneficiary of the rules, couldn't stand firmly.

Keyword

Kim Chang-heop, Funeral oration, 17th century, image of women

17세기 男性의 女性再現

고 연 희

김창협(金昌協, 1652-1708)은 17세기 후반의 대문장가이며 노론계 학파의 사상과 학문에 중요거점을 마련한 학자이다. 따라서 그가 남긴 많은 양의 여성애제문들은 17세기말엽 부쩍 증가한 여성애제문의 문화적 양상과 함께 그 시대 남성문인들의 여성인식상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김창협은 여성애제문들을 통하여 죽은 여성의 삶을 돌아보며 칭송할 만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녀들의 삶을 재구하여 기록해 주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기록한 여성의 삶들이 일정한 틀과 동일한 덕목 그리고 유사한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사실이다. 첫째 그의 여성애제문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한결같이 태어날 때부터 온화하고 온순한 성품을 가지고 출생한다. 둘째 어린 아이 때부터 어른스런 행동과 생각으로 주변을 돌본다. 셋째 시집을 가서는 시집식구와 남편을 봉양하느라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모든 어려운 일들을 군말 없이 견디어낸다. 그리고 끝으로 그녀는 병들어 죽고 주변의 사람들이 칭송하고 슬퍼한다.

그의 여성애제문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자신의 주장을 펼쳐 말하지 않고 말수가 적어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먼저 헤아리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또한 검박한 생활을 꾸려 자신을 꾸미지 않는다. 그녀들의 외모에 대하여는 거의 기록이 없으나 기록이 있는 경우는 후덕한 인상에 이마가 흰 통통한 얼굴이다. 간혹 김창협은 여성의 비참한 기억력이나 학업의 능력을 칭송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비범한 여성들도 여성으로 해야 할 일에 전념한 것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여성으로

서의 바람직한 상을 그려내었다.

요컨대 김창협이 칭송하여 재현해낸 여성상은 당시로서는 규범이 될 만한 내용이다. 따라서 이를 반복적으로 기록하여 읽도록 함으로써 집안의 모든 여성들을 계도하는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오늘날의 우리에게 당시 여성들의 실제 삶과 당시 여성들의 내면의 모습을 남겨주지는 못하고 있다.

그런데 김창협이 이렇듯 견고한 틀로 쓴 여성애제문 속에서도 당시 여성의 내면이 드러나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다. 김창협이 딸에 대한 개인적 감정 속에서 딸의 비탄을 그대로 기록한 부분은 그러한 예이다. 그 순간 김창협은 자신의 틀을 잠시 잊고 틀 속의 틈새를 내비치게 된다. 이는 당시 바람직한 여성상의 고수라는 기록의 원칙이 남성들에게마저도 견지하기 힘든 그 시대의 작위적 양상이었음을 밝혀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주제어

김창협, 제문, 17세기, 여성이미지